

전남도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코로나 시대 도민 생활안정 한몫

특례기준 마련·집행지침 개정

긴급생활비·검사키트 구입

섬진강댐 방류피해 배상금 지급

전남도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도민 생활안정에 한몫을 단단히 하도록 코로나19 대응, 수해 배상 등 다양한 분야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섬진강댐 방류피해 수해민 배상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코로나 상담센터 인력 운영, 신속항원 자가진단용 검사키트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를 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사전적 예방 활동인 방재(공공)시설의 긴급 보수·보강과 응급 복구에 주로 사용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재난관리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165억원,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담 콜센터 운영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 경비 등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0.5%를 예산으로 확보한다. 재난 발생 시 사후적 활동인 이재민 대상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주로 사용했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개정으로 사용 용도가 확대돼 2020년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로 347억원을 사용했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입에 예산을 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한 배상이 최근 결정됨에 따라 1차분 9억원을 이번 달 재해구호기금으로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두 기금을 활용해 재해 예방과 재난구호 등 본연의 목적과 함께 코로나19 신속 대응, 수해민 배상금 지급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재난관리와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21일 신안군 자연면 면전해변에 위치한 테이블식 친환경 개체굴 양식장을 찾아 양식 경과보고를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전남도, 개체굴 고소득 시범양식 현장 점검

산업화·생산기반 구축 방안 논의

전남도가 21일 새로운 양식 방법인 테이블식 친환경 개체굴 양식장을 찾아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화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방안 등을 점검했다.

테이블식 개체굴 양식은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지 않아 갯벌과 바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사료를 주지 않아 친환경적 양식업으로 부각하고 있다. 또 수하연에 매달아 덩어리째 키우는 기존 굴 양식과 달리 노출식 테이블에 그물망을 설치해 어린 종자 때부터 날개 단위로 양식에 모양과 크기를 상품성 있게 키우는 방식이다. 패각을 제거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시설해 공기 중에 자연 노출시킴으로써 따개비 등 이물질이 부착하지 않아 깨끗한 상태로 양식할 수 있고, 환경 적음

력이 강해져 일반 굴보다 유통 기간이 긴 장점이 있다.

개체굴은 일반굴보다 3배 정도 크고, 가격은 10배가량 높고 1년 내내 출하가 가능하며 맛과 향이 뛰어나고 무기질 영양분이 풍부하다.

국내 유명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에 전량 납품하고 있어 최근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신안 자연면 등 7개소에 친환경개체굴 공동 양식장을 조성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개체굴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고소득 어업소득 품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남의 큰 축을 담당하는 어업인이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진도 마로해역 분쟁 전남도 중재로 대화의 장 마련

양 지역 어업인 논의 재개

전남도가 마로해역 김 양식장 어업분쟁과 관련, 해남과 진도 어업인 간 대화를 통한 화해와 상생발전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사진>

마로해역 김 양식장 분쟁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마로해역에서 해남 어업인의 '김 양식 행사계약 이행 요구' 본소에 대해 진도군수협이 '김 양식장 인도 요구'로 반소한 사안으로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마로해역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해남 측의 김 양식 행사료 인상, 물김 위판 방법 개선, 대체어장 추가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중재를 끊임없이 시도했으나, 두 지역 어업인들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해남 어업인들이 지난 16일부터 도청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직접 나서 이날 자정과 17일 오전 2차례에 걸쳐 두 지역 어업인 간 적극적 중재 방안을 설명했다. 그 결과



해남 어업인들이 농성을 풀고 대화의 장에 나섰다. 두 지역 어업인들은 17일 극적인 만남을 통해 문제를 대화로 풀기로 했으며, 특히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남과 진도는 역사적으로 명량

대첩의 국난 위기에서 함께 힘을 합쳐 극복했고, 이를 기념해 명량대첩축제를 함께 치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서, 앞으로 두 지역의 입장을 융합해 상생과 번영의 길로 함께 가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촌융복합형 국산 커피산업 육성 시동

대학교수 등 전문가 토론회

전남도가 17일 도청에서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육성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전남이 커피 재배의 최적지라는데 공감하고 산업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지역 커피 재배 면적은 6ha로, 전국(9ha)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 농가 수는 21호로 연간 4t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산 커피의 생산과 소비 전망 정

보를 공유하고 전남의 커피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도의 커피산업 동향 안내, 전문가의 산업 육성 방안 설명,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는 한국커피과학회장이던 정은화 단국대학교 교수, 백지환 광주대학교 교수, 이은훈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차상화 화순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 대표, 류동선 고흥 커피코리아팜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다.

전문가 설명 시간에는 백지환 교수가 커피산업의 미래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 마련, 커피 묘목 안정적 생산·보급, 청년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조성, 가공·관광을 연계한 산업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남은 지리적으로 커피 재배의 최적지이고 아열대 과수 연구시설 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 커피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려면 생산과 가공·체험, 교육을 한 곳에서 하는 체험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농기원, 강황 추출물 '바디클렌저' 출시

피부 보습·각질 제거 효과 탁월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6일 "진도 특산품인 강황 추출물을 이용해 바디클렌저를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농기원은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강황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 출시된 제품은 강황으로부터 항염, 항균 효과가 뛰어난 천연 정유 성분을 추출해 첨가해 피부 보습과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농기원은 지난해 강황 추출물 바디클렌저에 대한 특허출원과 동시에 도내 가공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어 상품화 기술지원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진도 솔비치리조트 특산물관에 입점시키는 등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농기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우석 연구사는 "농촌진흥청 시제품 모니터링 패널 평가결과, 사용 2주 후 26% 피부 수분 개선과 68%의 각질



강황 추출물 첨가 바디클렌저 제품

제거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제품의 효능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특산물 소재에 대한 가능성을 찾고, 제품개발과 사업화에 힘써 농산자원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